

## 통일교 커넥션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

###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발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한국시간) 구속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며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오갔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 표결을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1억원 상당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과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또 권 의원이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정황 등 추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 윤석열 정부에 교단 지원 요청 1억원 전달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다.

특검팀은 지난 17일(한국시간) 한 총재를 9시간 반 동안 소환 조사한 뒤 불과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은 한 총재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자진 출석한 점, 수사 과정에서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2012년 9월 단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독으로 총재직에 오른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2년 초 권 의원에 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통일교 측은 현금 5천만원과 관봉권 5천만원을 나눠 상자에 담아 전달했으며, 상자 포장지에는 ‘王’자가 새겨져 있던 사실도 확인됐다.

또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사립백을 건네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교단 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세계본부장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게 접근해 청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은 향후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등 추가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 트럼프-시진핑, 경주 APEC에서 첫 대면 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공식 대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이 정식 정상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안보와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회담 직후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며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



▲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이후 약 8년 만에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의 마지막 미국 방문은 2015년 9월이었다.

#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Ryan Chang, DPM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 각종 보험 취급 —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